

임진록에 나타난 허구적 인물의 성격과 기능

신 태 수

<목 차>

- | | |
|---------------------|-------------------|
| 1. 들머리 | 4. 개인의 예언과 집단의 파괴 |
| 2. 임진록에 나타난 최일경의 생애 | 5. 마무리 |
| 3. 문제 해결 능력의 확대와 축소 | |

1. 들머리

임진록(壬辰錄)은 임진왜란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이다. 한동안 임진록이 설화의 집성체나 소설이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다가 이제는 소설로 보는데 이설(異說)이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장르 시비가 완결되면서 작품 자체 연구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임진록을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하고 형성과정, 주제 등의 연구를 통해 역사소설로서의 미적 가치를 찾아내려는 일단의 노력¹⁾은 그 주된 흐름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동안 드러난 결과를 보면 임진록 연구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 논증을 거치지 않은 채 민중의식, 시대의식과 같은 의미망 포착에 집중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원인은 임진록 자체의 구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임진록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면서도 인물과 인물 간의 뚜렷한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고 인물 각각의 활동이 순차적으로 펼쳐진다. 또한 각 인물의 행적은 역사적 사실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민간설화를 가미하고 있어 자기 독립된 삽화가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대다수의 논자는 자료 자체의 성격상 인물과 인물과의 관계, 작품 진행 원리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한 인물씩 깊이 있게 천착해서 그 성과를 종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태도는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도 하나, 40여 편의 임진록 이본이 모두 이렇게 분석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임진록군(壬辰錄群) 중

1) 소제영, 임병양판과 문학적식(한국연구원, 1980)과 임철호, 임진록연구(경유사, 1986)가 대표적인 저작이다.

2 嶺南語文學(第14輯)

역사계열에서 벗어날수록 허구적 인물의 역할도 많아지고 짜임새가 정연해져서 완결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이본도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 인물만을 문제삼을 때 작품 전개가 산만하고 무질서하게 보이던 것도 허구적 인물까지 고려한다면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허구적 인물이란 실존하지 않았거나 어느 때인가 실존했더라도 당대에는 활동하지 않았던 인물이라 하겠는데, 최일경,²⁾ 김희문, 관운장, 태백산 소년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최일경은 특히 임진록 10여 편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허구적 인물에 비해 작품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대단히 크다. 즉 서두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인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사건을 제시, 조종하고 있어서 작품에 유기성을 부여한다.

필자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임진록 중 최일경이 나타나는 이본을 자료로 삼아 작품론을 전개하려 한다. 최일경을 연구하게 되면 대상 자료의 개별 및 유형구조가 드러날 것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를 통하여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인물의 관계를 밝히는 일이다. 역사소설 연구에서 역사적 인물만을 중시하고 역사적 인물에 미치는 허구적 인물의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역사적 인물 이상으로 허구적 인물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본고에서 입증될 것이다. 본고는 역사소설에 나타난 허구적 인물의 성격과 기능을 연구하는 첫 걸음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본고에서 이용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³⁾

- 1) 경북대본, 64장
- 2) 서울대본, 48장
- 3) 김동욱본, 55장
- 4) 국립중앙도서관본, 44장(이하 국도본으로 약칭함)
-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 70장(이하 정문연본 1로 약칭함)
-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 38장(이하 정문연본 2로 약칭함)

2) 경북대본, 서울대본, 국립중앙도서관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70장)에는 최일경으로, 김동욱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38장)에는 최일영으로 나타나는데, 빈도수가 많은 쪽의 표기를 따르기로 한다.

3) 본고에서 택한 자료 이외에 몇 편이 더 있지만, 원본을 입수할 수 없어 다루지 못했다.

2. 임진록에 나타난 최일경의 생애

임진록에 나타난 최일경이 어떤 인물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생애를 정리해 본다. 핵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단락의 줄거리를 요약하고, 이것을 단락소로 표시한다.

- | | |
|---|----|
| 가. 높은 가문의 소생으로 비범한 출생을 함. | 출생 |
| 나. 왜란을 예언한 죄명으로 유배됨. | 고난 |
| 다. 왜란을 제일 먼저 목도하고 방비를 건의함. | 활약 |
| 라. 적소를 이탈하여 임금에게로 올라옴. | |
| 마. 김응서를 천거하고 소첩 ⁴⁾ 을 처치하게 함. | |
| 바. 중국에 청병할 것을 건의함. | |
| 사. 군량 부족을 해결함. | |
| 아. 영의정에 제수됨. | |
| 자. 우연히 득병, 사망함. | 입신 |

각 단락의 분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락	이본	경북대본	서울대본	김동육본	국도본	정문연본 1	정문연본 2
가					○		○
나			○	○	○	○	○
다			○	○	○	○	○
라			○	○	○	○	○
마		○	○	○	○	○	○
바		○	○	○	○	○	○
사			○	○	○	○	○
아			○	○	○	○	○
자					○		

도표를 보면 이본에 따라 특정한 단락이 가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진 단락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4) 왜장의 이름, 소서행장(小西行長)의 와전인 듯하다.

유형은 최일경이 권세있는 가문에서 비범한 출생을 하여 적대자와 치열한 투쟁을 벌이다 한 때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마침내 이를 극복하고 입신한다는 내용을 지닌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일경이 등장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최일경이 사라지면서 임진왜란이 종결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두에서 최일경이 겪는 고난이 사실은 민족의 수난이고, 최일경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칠 년 왜란의 끝임을 암시하는데, 이 점에서 최일경은 임진록의 작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출생→고난→활약→입신에 이르는 최일경의 일대기가 조선조 군담소설의 일반적 유형인 “영웅의 일생”에 근접한다는 것도 지적할 만하다. 주인공이 막연히 지체 높은 가문의 소생이라 하지 않고 “인간 화복 묶인 문서 한 권을 일은 죄로 인간의 적후”(국도본, 1쪽)였거나 “불전의 비터서 자식얼 점지”(정문연본 2, 1쪽) 받았다고 하여 적강(謫降) 모티브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 간접적으로 투영되어 있으며, 또 이러한 요소가 주인공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군담소설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비범한 출생이 작품구조에 일관성있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는 여타의 군담소설과 다르다. 즉 서두에서 결말에 이르는 주인공의 생애가 연속적으로 모든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군담소설의 일반적 유형⁵⁾이라 한다면, 최일경이 등장하는 임진록에서는 이러한 성격이 약화되어 부분적인 영역에서만 영향을 미친다. 출생시에 제시된 능력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제한적으로 발휘되는 이유는 그 자신의 결함 때문인가 임진록 구성의 특성 때문인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3. 문제해결 능력의 확대와 축소

최일경은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십 세 전의 빅가셔울 모을 거시 업고 칠너 밧게 이을 손금 보듯 하”(서울대본, 1쪽)는 선견지명과 “글제를 살펴피보고 시지를 펼쳐놋코 용연의 먹을 가려 일필휘지하여 일천의 선장하”(서울대본, 1쪽)는 재능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란이 일어나자 이 탁월한 능력은 앞날의 고통을 점치는 예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예언이 언제나 빗나가지 않고 적중되므로 최일경의 능력은 탁월하다 하겠으나, 자신이 직접

5)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이화여대 출판부, 1985), 219쪽.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능력을 확인하는 정도에 머무른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출장입상하는 것이 군담소설의 일반적 내용임에 비추어 볼 때, 전장(戰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예언으로 일관하는 최일경의 경우는 군담소설에서 나타나는 주인공과는 분명 다르다. 서두에서 제시된 탁월한 능력이 실제 싸움에서 행동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일경의 출생, 성장과정은 여타의 군담소설과 다르지 않다. 최위공이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기자치성 끝에 옥관선풍인 최일경을 낳았고 어려서부터 최일경은 비범한 재주를 마음껏 발휘했는데, 군담소설에서 이러한 출생, 성장은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최일경의 환로 진출이 아무런 장애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능력이 탁월한 최일경은 십삼 세에 등과하고 십구 세에 좌의정에 이른다. 훌륭한 가문의 소생으로 재상의 위(位)에 올랐으니 정적을 물리치거나 혼사 장애를 애써 극복한 뒤 입신하는 군담소설의 주인공에 비해 환로가 순탄한 편이다. 이렇게 출생, 성장, 환로 진출이 작품 서두에서 완결되는 것은 서두 부분이 그 다음에 펼쳐질 사건을 예고하는 장치임을 시사한다. 개인이 겪는 전반부의 생애가 사실상 끝남으로써 후반부는 개인의 이야기만으로 일관되지는 않을 것이며, 사건이 진행될수록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되리라 추측할 수 있다.

후반부는 최일경이 적소(謫所)인 동래를 이탈하여 의주로 올라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최일경이 유배당한 이유는 선조의 꿈을 왜(倭)자로 풀이하고 머지 않아 왜병이 조선을 침범할 징조라고 했기 때문이다. 요망한 말로 민심을 소란케 한다는 죄명은 왜적의 침입으로 무죄임이 밝혀졌지만, 방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도성을 버리고 떠나는 임금이 한 신하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리가 없었다. 사태의 위급성을 느낀 최일경이 자의적으로 동래를 떠나고 마는데, 여기서 왕명을 어기게 된다. 신하가 왕명을 어긴 것이 비록 대의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행위 그 자체는 용납되기 어렵다. 최일경의 이러한 처사는 임금에 대해 대의를 빙자한 도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임금이 최일경을 문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과실을 시인하여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되는 사건을 통해 최일경이 임금의 우위에 섬으로써 도전적인 성격이 지속된다. 이처럼 후반부에 펼쳐지는 최일경의 생애는 전반부와는 달리 임금에 대한 도전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 嶺南語文學(第14輯)

청병 군사 가난 기리 십 이 박깃 칠성당을 묵고 겨안이 굴건 독을 무드노코 기
독 안이서 우림을 울면 우림 소리 듯곳 회집항리라 호저을(정문연본 2, 22쪽)

인용한 대목은 회군하려는 원병군을 되돌리는 장면이다. 원병장 이여송은 왕상(王相)이 조잡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적군을 목전에 둔 채 군사를 돌이키고자 했는데, 이때 최일경이 묘안을 써서 무마시켰던 것이다. 원병군의 회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해야 할 지경이니 최일경의 처사가 그릇된 것일 수 없다. 그러나 임금이 독 안에 들어가서 울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지존으로서의 권위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만다. 임금의 권위가 실추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여송의 방약무인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지만, 이여송의 회군을 막을 방안만 앞 세우고 임금의 위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일경에게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세사회에서는 임금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았고, 임금의 권위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최일경이 임금의 권위를 떨어뜨린 이유는 임금에 대한 충보다 더 귀중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일경은 김응서에게 소섭을 처치할 계교를 알려주면서 “나의 생사와 국가 흥망은 전혀 네게 달”(국도본, 16쪽)였다고 했다. 여기서 국가의 흥망은 임금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은 “비록 왕명은 업시나 본국 신민이 되어 국사의 죽어도 엇지 한니 잇스리요”(국도본, 11쪽)하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 왕명을 지키자면 적소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겠지만, 최일경의 경우에는 나라를 위한 것이 반드시 임금에 대한 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동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것은 임금에 대한 충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강토를 위해 싸우는 민중⁸⁾을 임금에게 소개하는 가운데서 명백히 드러난다.

- ㄱ) 일죽 듯스오니 평안도 용강씨의 스난 김응서라 호년 지 잇스되 힘이 능히 삼천 근을 들고 금술은 도자롱이게 비호다 호오니(서울대본, 11쪽)
- ㄴ) 지금 소섭이 평양의 운거하야 기싱 월선을 첩을 삼고 슈야로 풍악을 갖초고 월선이 잇다 호니(서울대본, 12쪽)
- ㄷ) 신이 듯스오니 평안도 삭주 북변 소춘동의 김슈업이라 하난 스람이 잇스 피곡석이 이십육만 석이 잇사 호오니(정문연본 1, 36쪽)

ㄱ)은 야인 김응서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ㄴ)은 평양성을 점령하고 있

6) 지배계층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환완상, 민중사회학(종로서적, 1984), 64~67쪽 참고.

는 소섭의 정황에 대해서, ㄷ)은 토호 김수업의 재력에 대해서 밝히는 대목이다. 유능한 장수가 부족한 처지에서 초야에 묻힌 장수를 발굴하거나 복진을 계속하는 왜적의 동태를 알아내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나 토호의 곡식을 군량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것들이 최일경을 통해 제시되고 있어서 최일경의 선견지명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ㄱ), ㄴ), ㄷ)에는 앞날을 미루어 점치는 예언과는 또 다른 능력이 개입되어 있다. 의주의 통곡성에서 임금과 가장 가까운 최일경이 평안도 촌구석이나 평양성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적장의 세밀한 동정까지 알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최일경에게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은 또 다른 주체의 힘이 개입되었다는 의미이다. ㄱ), ㄴ), ㄷ)의 끝부분을 살펴보면 “하오니”, “하니”로 되어 있다. 이것은 남에게 들은 사실을 전하는 어투인데, 여러 지역 여러 인물을 어느 일개인으로부터 모두 듣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므로 전달의 주체는 집단적인 민중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민중의 제보에서 임금에 대한 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그 대신 “평안도 용강짜”, “평양”, “평안도 삭쥬 북변 소춘동”이라는 지명과 거기에 있는 인물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통해서 향토를 지키려는 민중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최일경은 군주를 향한 충성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 여기고 있을 임금에게 강토를 지키는 민중의 의지를 [제시함으로써 충이 군주를 향해서가 아니라 강토, 민족을 향해서 분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 충이라는 보호막에 가리워져 있던 임금이 사실은 무력한 존재로 밝혀진다. 임금이 당면한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의사를 갖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최일경이 난국을 도맡아 처리해 나가는 데서 무능한 군주와 현명한 신하가 대조되고,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자 강토를 지키기 위해 초야에서 기병한 의병장들의 활약이 강조되는 데서 도망가는 군주와 지키고자 하는 민중이 대조를 이루면서 임금의 무능함이 노출된다. 그런데 최일경의 이러한 행위가 임금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의주 통곡성에서부터 전란이 끝나고 도성으

7) 본고의 자료들에 나타나는 임금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눈물만 흘린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곳이 거의 의주 통곡성인 것으로 보아 작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듯하다.

로 돌아온 뒤로도 언제나 임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면모를 보였는데, 이것은 최일경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해 볼 때 최일경이 탁월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전장에 참가하지 않은 원인은 다음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최일경은 적대자로부터 특권을 상실하지도 않았고 적대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이다. 2장에서 임진록과 군담소설의 관계를 밝혔다. 여기서도 군담소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유충렬전”, “조웅전”의 주인공과 최일경의 경우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유충렬전”의 유충렬, “조웅전”의 조웅은 조상 대대로 누려 오던 특권을 적대자에게 빼앗기고 이것을 되찾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지닌다. 적대자는 주인공이 누리는 특권만을 유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종적인 목표를 왕권 탈취에 둔다. 따라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무찌르는 것은 자신의 가문을 되살릴 뿐 아니라 역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동시적인 일이다.⁸⁾ 가문과 나라의 비중은 표면적으로 볼 때 나라 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문 쪽에 치우쳐 있다. 이 계열에 속하는 대부분의 소설이 가문에서 누려온 특권의 상실과 회복을 많은 분량으로, 나라에 대한 내용은 이에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의 적은 분량으로 할애하고 있다. 서술 순서도 나라에서 가문이 아니라 가문에서 나라로 진행되는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최일경은 적대자에게 조금도 가문이 손상되지 않았고, 또 가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가문의 위신을 위해 적과 싸울 이유가 없었고 처음부터 바로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전부였으니 전장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 최일경이 내면적 갈등을 겪음으로써 자체의 힘을 한쪽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내면적 갈등은 민중의 저력을 드러내면서 임금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러면서도 측근에 머물면서 충을 다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자의 측면에서라면 임금을 모시는 신하로서의 위치를 박차고 독자적인 힘을 행사해야 할 것이고, 후자의 측면에서라면 다른 것이야 어떻게 되든 임금의 권위가 추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8) 박일용, “영웅소설 유형변이의 사회적 의미”,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한국문학연구회편, 1983), 197~200쪽에도 이와 같은 논의가 있다.

다했어야 할 것이다. 최일경은 독자적인 행동을 시도하지도 못했고 임금의 권위를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다. 평민 출신의 장수라면 갈등을 겪는 법이 없다.”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전장에 바로 달려가 온갖 무용을 떨치다 신명을 바칠 뿐이다. 그래서 평민 출신의 장수가 분기를 느낄 때 그 정도에 따라 힘이 결정된다. 이들은 거의 즉흥적 충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힘을 일으키면 오직 한 목표를 향해 전부를 분출한다. 조동일본 임진록에 나타난 김덕령의 경우 “소리를 들으며 분성지분을 이기지 못하”(조동일본, 36쪽)는 기질이 있었기에 조서비, 복지, 평수길, 조석관 등의 연쇄적인 침입에도 굴하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최일경은 김덕령과 같은 민중 출신의 장수와는 달리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힘을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도 전장에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서두에서 제시된 최일경의 탁월한 능력이 전장에서 발휘되지 못한 원인은 적대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내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적과 싸울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의 입장에 머물렀으며, 신하이면서도 임금의 권위를 실추시키고자 했으니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결과 최일경은 자체 내의 힘을 집약시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질적인 민중의 힘을 끌어 왔다. 타고난 능력에다 민중의 힘이 결합되니 표면적으로는 힘이 확대된 것 같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바를 자기갈등으로 인하여 민중에게 내어 준 셈이므로 실제 자신의 힘은 축소되었다 하겠다.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이 임금과 민중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결국 자신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힘이 축소되고 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4. 개인의 예언과 집단의 파괴

일장에서 최일경의 이중적인 면모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 갈등 때문에 자

9) 역사에서 평민이 소설에서는 상층 신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평민 출신 그대로 일 때는 갈등을 겪지 않지만, 상층 신분일 때는 심한 갈등을 겪는 것이 보통이다. 신태수, *곽재우전승의 양상과 의미*(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석사논문, 1986), 264~285쪽에 자세한 언급이 있다.

체 내에 힘을 끌어들일 수 없었던 점을 밝혔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같은 요소는 인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술구조에서도 발견된다. 출생, 성장에 이르는 서두에서는 적대자와의 대립없이 사건이 빨리 진행되지만, 적소를 벗어난 이후 임금에 대한 도전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사건의 진행이 완만해졌다. 후반부가 완만해지는 이유는 여러 민중 출신의 의병장들이 대거 등장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장면이 길어져서 최일경의 일대기가 때때로 단절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최일경 개인과 의병장 집단의 기록이 교차되면서 대립적으로 짜여 있음을 뜻한다. 임진록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개인과 집단의 기록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가 밝혀 본다.



도표에 의하면 임진록 서두에는 최일경의 출생, 성장, 중간부분에서 활약상, 결말 부분에서 입신양명이 다루어진다. 그런데 이 세 부분 사이에는 상호 인과적인 관계가 없는 편이고 시간적 공간적 배정도 일정치 않다. 출생은 평안도 삭주, 등과는 한양, 귀양은 동래로 가고, 김응서 천거와 원병군 요청 그리고 군량 조달을 한 곳은 의주이며, 난리가 평정된 뒤 영의정에 오른 곳은 한양이므로 서두와 중간부의 시간, 공간이 특히 변화가 심하다. 서두에서 삭주→한양→동래로의 이동이 거의 시간적 격차없이 진행되니 시간에 비해 공간의 이동이 급하고, 중간부는 의주 통곡성에 국한되면서도 시간적 격차가 심하므로 공간에 비해 시간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

시간에 비해 공간이 빨리 이동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사건의 긴박성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최일경이 동래로 유배된 뒤 바다를 가득 메우며 쳐들어오는 적선을 발견하고 미처 싸워 보지도 못한 채 “절나좌도 의놈을 피하야 분주히 도망하”(정문연본 2, 15쪽)여 의주로 올라가야 했으니, 임진왜란은 어느 일개인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天災)임이 밝혀진다. 이와 같이 공간의 거듭되는 이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발휘가 거부당하고, 그 대신 집단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각처에서 의병장들이 봉기하여 활약을 벌이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이다. 여기서 최일경 개인의 능력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단지 앞날을 예언하고 장수를 천거하는 정도에 그친다.

장수 천거도 김응서, 강홍립, 이여송에 국한되며 광재우, 김덕영, 이순신

등의 의병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 이유는 최일경이 서두에서와는 달리 임금이 파친한 의주 통곡성에만 머물러 있고 공간적 이동이 없기 때문이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니 왜적과 대결할 기회는 없어진 셈이고 상대적으로 의병장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렇게 보면 임진록 전체가 전투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며 성격이 서로 다른 개인의 예언과 의병장들이 왜장과 벌이는 싸움이 교차되면서 짜여짐을 알 수 있다. 위에 도표에서 의병장들이 활약하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ㄱ), ㄴ), ㄷ)이라 하고 최일경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ㄱ)은 최일경이 선조 임금의 꿈을 풀이하고 동래에 귀양 간 뒤의 일인데, 최일경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여 왜선이 무수히 침입한다. 도처에서 백성들이 도륙당하고 참혹한 정황이 벌어진다. 초야에 묻혀 있던 이인들이 일어나서 왜적에 대항하나 전황은 막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국운이 위태롭게 된다. ㄴ)은 최일경의 건의로 이여송이 원병장으로 출정하게 되고 최일경의 지시를 받은 김응서, 강홍립의 활약으로 왜장이 하나하나 쓰러진다. 최일경과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왜적과 싸우는 장수들도 대거 나타난다. ㄷ)에서는 군량부족을 최일경이 해결하게 되자 아군이 세력을 회복하고 청정을 처치한다.

ㄱ), ㄴ), ㄷ)에서 최일경이 직접 싸움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최일경이 예언한 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일경의 예언이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된 부분은 ㄴ)이다. 여기서는 다른 어느 쪽보다 아군 장수가 왜장을 처치하는 장면이 박진감있게 펼쳐진다. 그런데 서술 대목이 길어지고 내용이 박진감 있을수록 집단의 능력은 강조되고 있으나, 최일경 개인의 일대기로서는 촛점이 흐려지는 현상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집단에 대한 서술이 길어질수록 최일경 일대기의 긴장된 흐름은 이완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최일경이 예언한 대로 ㄱ), ㄴ), ㄷ)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단선적이지 않고 여러 갈래로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왜국이 강승하여 불구의 디환이 이럴 듯하”(국도본, 2쪽)라고 왜란을 예언했지만, 실재 벌어진 상황은 “날이 저물면 처처 화광이 충천하고 낮이면 노략질하난 도적이 빅성을 무슈히 죽이고 우름소리 구천의 진동하”(국도본, 4쪽)는 민족의 비극으로 나타났고, 김응서를 파견하여 소섭을 처치하게 되면 왜란이 끝날 것처럼 예언했지만 소섭이 죽은 후에도 수많은 아군의 장수들이 청정의 대군을 무찌르기 위해 피를 흘려야 했다.

이처럼 단선적인 개인의 예언이 현실의 복합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

나, 임진록 전체의 구성은 최일경의 예언이 확인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예언의 파괴과정이 지속되면 될 수록 최일경 일대기로서의 임진록은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이완의 성격이 강해진다. 따라서 최일경 개인의 차원에서는 예언한 대로 사건이 진행되어 일정한 방향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민족의 수난이 일개인의 단순한 예언과는 다르다는 점이 다각도로 밝혀질수록 개인이 조성하는 긴장감은 더 큰 무게에 의해 와해되어 버린다고 할 수 있다.

임진록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율배반적인 관계는 개인의 전기(傳記) 속에 집단의 기록이 포괄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곧 개인이 집단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서고자 하나 집단을 장악할 수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다. 최일경은 임금에 대해 반발하면서 집단에 접근하고 있으나 오히려 예언이 집단에 의해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얻는 바가 없었다. 군담소설에 익숙한 독자라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것인데, 임진록에 나타난 최일경에게서 이러한 기대가 파괴된다. 탁월한 개인의 능력이 집단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은 독자에게 긴장과 충격을 느끼게 하고 극적 흥미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일경이 등장하지 않는 임진록에서는 실제 인물이 벌이는 사건을 두서없이 나열하고 있으므로¹⁰⁾ 최일경이 등장하는 임진록에 비해 긴장감이라든가 극적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임진록이 사실과 설화의 복합된 기록이고 보면 다루는 범위는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임진록이 서두와 결말이 뚜렷한 서사체를 지향하는 한 의도적인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인데, 최일경의 전기는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 긴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전기와 산만할 수밖에 없는 집단의 기록이 서로 대립하면서 한 편의 통일된 서사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타 임진록 유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수법이라 할 수 있다.

5. 마 무 리

본고는 최일경이 등장하는 임진록을 자료로 삼아 최일경의 성격과 작품 내적 기능을 알아 보았다. 인물의 성격과 기능은 작품의 구조와 연결지를 때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기에 서술구조의 해명에 주안점을 두면서 논의를 전개

10) 임철호, 임진록연구(정음사, 1986), 91쪽.

했다. 지금까지 전개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일경이 등장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최일경이 사라지면서 임진왜란이 종결된다. 이것은 서두에서 최일경이 겪는 고난이 사실은 민족의 수난이고 최일경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임진왜란의 끝임을 암시하는데, 이 점에서 최일경은 임진록의 작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이라 하겠다.

2. 최일경이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도 전장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적대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고 내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적과 싸울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의 위치에 머물렀으며, 신하이면서도 임금의 권위를 실추시키고자 했으니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결과 최일경은 자체 내의 힘을 집약시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질적인 민중의 힘을 끌어 왔다. 타고 난 능력에다 민중의 힘이 결합되니 표면적으로는 힘이 확대된 것 같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바를 자기 갈등으로 인하여 민중에게 내어 준 셈이므로 실제 자신의 힘은 축소되었다 하겠다.

3. 갈등은 인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구조에서도 나타난다. 최일경이 예언한 바가 여러 장수들에 의해 현실화되는데, 장수들에 대한 서술이 길어질수록 집단의 능력은 강조되지만 최일경의 일대기로서는 촛점이 흐려진다. 또한 장수들이나 기타 사실에 대한 서술내용이 최일경이 예언한 것 이상으로 훨씬 자세한데, 예언은 추상적이고 현실은 구체적이다. 이 점에서 임진록 전체의 구성은 최일경의 예언이 확인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파피되어가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그리고 있다 하겠다. 예언과 파피의 순환적 구조는 최일경이 등장하지 않는 임진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수법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예상되는 자료 10 편 중 6 편만으로 한정하고 도출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자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대로 결론이 보완되어야 하겠고, 사회사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역사소설에서의 허구적 인물을 검토하고 임진록의 경우와 비교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앞으로 역사소설에서 허구적 인물의 성격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구명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1. 박일용, “영웅소설 유형변이의 사회적 의미”, 근대문학의 형성과정(한국문학연구회편, 1983)
2.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이화여대 출판부, 1985)
3. 소재영, 임병양란과 문학의식(한국연구원, 1980)
4. 신태수, 광재우전승의 양상과 의미(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석사논문, 1986)
5. 임철호, 임진록연구(정음사, 1986)
6.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 1981)
7. 한완상, 민중사회학(종로서적, 1984)